

## 세계 대학생들의 꿈 빛고을서 빛나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개막을 앞두고 지난 1일 밤 광주 서구 풍암동 주경기장인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식 최종 리허설이 열렸다. 빛고을 광주의 밤을 밝혀주는 화려한 레이저 빔이 지구촌 젊은이들의 열정과 낭만의 잔치를 축하해주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 사상 최대규모 국제행사 유니버시아드 오늘 화려한 개막 149개국 1만 3천여명 선수단 금 272개 놓고 열전 12일 돌입

사상 최대규모인 '2015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U대회)가 3일 오후 7시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화려한 개최식을 시작으로 12일간의 열전에 돌입한다.

〈관련기사 2·3·4·8·20·22면〉  
'창조의 빛, 미래의 빛' 슬로건을 내건 이번 광주 U대회는 149개국 1만3000여명의 선수단이 참석해 총 21개 종목에서 금메달 272개를 놓고 치열한 열전을 펼치게 되며 광주시가 지금까지 치러온 국제

대회 중 가장 큰 스케일이다.

우리나라에서 유니버시아드가 개최되는 것은 1997년 무주 동계대회와 2003년 대구 하계대회에 이어 이번 광주 대회가 세 번째다. 특히 이번 대회는 메르스 등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열려 U대회가 국민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 사회에 큰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U대회는 광주·전남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초대형 국제이벤트라는 점에서 광주·전남지역 발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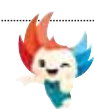
4만여명의 관중이 함께하는 개최식은 '빛고을' 광주에서 열리는 대회답게 '젊음이 미래의 빛이다(U are Shining)'라는 주제로 세계 젊은이들에게 미래를 이끌어 갈 용기와 희망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날 4일부터 시작된 국내 성화 봉송

은 2일부터 이틀간 광주 시내를 돈 뒤 이날 밤 성화대에 불을 밝히게 된다. 우리나라는 21개 전 종목에 선수 382명과 경기임원 97명, 본부임원 37명 등 총 516명의 선수단이 참가하며 금메달 25개 이상을 획득해 종합 3위를 탈환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리듬체조 손연재(연세대)를 비롯해 양궁 기보배(광주시청), 체조 양학선(수원시청), 배드민턴 이용대(삼성전기) 등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도 메달을 바라볼 수 있는 각 종목의 간판 선수들이 대거 출전한다.

#### 축구 남녀 대표팀 첫 승전보

한편 한국 선수단 중 가장 먼저 경기에 나선 U대회 남녀 축구대표팀이 2일 첫 승전보를 전했다.



#### U대회 함께 즐겨요

- ▲'광주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음악회' 4일 오후 5시 문화회관 대극장
- ▲2015세계청년축제 개막 4~12일 금남로 및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아시아스포츠포럼이축제 HOW FUN 3~12일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3~14일 오후 8~9시 유니버시아드파크

한국은 이날 영광스포티움체육관에서 열린 남자축구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대만에 3-1로 승리해 승점 3점을 챙겨 8강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여자대표팀은 같은 시각 나주공설운동장에서 열린 대회 A조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체코를 3-1로 물리쳤으나 여자배구 대표팀은 A조 조별예선 1차전에서 중국에 세트스코어 1-3으로 무릎을 꿇었다.  
/특별취재단=최권일·박정욱기자 cki@

#### 중 버스 추락사고 한국인 연수 공무원 26명 사상

#### 광주·전남 12명 참여...1명 사망·1명 부상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으로 역사 문화탐방에 나섰던 광주시 공무원 등 지방공무원 일행을 대운 버스가 추락, 모두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정부는 사고 수습을 위해 2일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이 이끄는 사고수습팀 11명을 현지로 급파했다. 광주시는 사고 직후 사고상황반을 구성하고 분향소를 마련하는 등 사고수습에 나섰다.

〈관련기사 7면〉  
2일 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현지시간)께 지린성 지안과 단둥(丹東) 경제지점 조전족마을 부근 다리에서 발생한 버스 추락사고로 광주시 소속 김철균(55·지방공영사무관)씨 등 공무원 10명이 숨지고 1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 등 한국인 사망자 10명의 시신은 지안 시내 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이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속 5급 지방직 공무원들로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이 운영하는 '중견리더과정'에 참여해 지난달 29일부터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옌지(延吉)·단둥(丹東) 일대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를 둘러보는 문화탐방에 나섰다. 행자부는 5급 지방직공무원 143명(광역 95명·기초 48명)과 연수원 관계자 5명 등 143명과 연수원 관계자 5명이 연수에 참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광주시 소속 공무원 4명(시청 3명·북구청 1명), 전남도는 8명(전남도청 6명·강진 1·나주 1명)이 참여했고 숨진 김사무관 외에 전남도 임모(5급) 사무관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8시5분 향공편을 시작으로 속속 현지로 출국했다.  
/백희준기자 bhj@kwangju.co.kr

**학교설립 61주년**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학부 605-1114, 대학원 605-1115

## 우리가 먼저 웃고! 우리가 먼저 지키고!

# 선수는 열정 금메달, 시민은 질서 금메달!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 7.3 ~ 7.14(12일간)

광주 U대회  
성공은  
시민의 힘으로!